

고호석(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감사1)) 1차 구술

1. 구술자: 고호석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2년 2월 3일
5. 구술장소: 부산 연제구 전교조 부산지부
6. 구술분량: 05분 45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부림사건²⁾ 재판과 노무현 변호사의 변모과정(2)

구술자 : 노무현 변호사님은 우리와 재판을 시작하고부터는 우리와 한 편이었어요. 거의 공범 수준이 돼가지고 변론을 한 거지요. 그러다보면 우리는 비교적 좀 차분한데 노 변호사님이 검사의 공소사실, 질문 이런 거에 대하여, 또는 판사의 언급에 대하여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면서 막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판사한테서,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번씩은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다가 자기감정을 삭이지를 못해서 예의 고개를 푸욱 숙이고 잠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여하간, 그렇게 재판이 쭉 진행되니까 검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지요, 서적 감정³⁾한다고 나온 친구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대지요, 판사는 앉아서 자다가 한 번씩 깨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 답답했지요. 자기가 시국사건은 처음이니까. 시국사건이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흘러가나, 그래도 할 말은 하고 말이 되는 거는 좀 이렇게 서로 말이 되게 가야 될 거 아니냐.

1) 2012년 2월 구술 당시 현직

2)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정권이 이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당시 반독재투쟁의 중심이었던 학생들을 용공혐의로 대거 구속함으로써 이들을 대중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사건으로 198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다.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정부전복집단으로 매도되어 총 22명이 구속되었고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다. 이들의 변호인단으로 노무현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197쪽 참고.

3) 부림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전환시대의 논리’ 등 수 십종의 사회과학 출판물의 이적성 여부를 놓고 검사측은 대학교수와 공안기관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서적에 대한 감정 결과를 심문했다. 고호석 1차 구술, 2012.2.3 참고. 1989년에는 경찰 내에 ‘공안문제연구소’라는 관변단체를 설립하여 시국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서적이거나 출판물 감정을 본격 다루었다.

나중에 판결이야 뭐 어떻게 때리든지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최소한 재판 진행 자체는, 재판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분노가 아주 컸고. 그거 해보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변호사라는 게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런. 참 말도 안 된다 이거. 참 자기에 대한 자괴감이죠, 그것도. 그런데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이 좀 나구요.

재판중은 아니지만 일(1)심 끝나고 이(2)심 항소심 올라갈 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그때도 참 우리가 그날 최후결심을 할 줄 몰랐어요. 재판기일이 아주 촉박해가지고 그때는 막 일(1)주일에 한번 씩 이렇게 막 땡겨가면서 하기는 했지만 워낙 할 게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결심(結審)을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판사가 ‘오늘 결심하자’ 이러더라고. ‘안 됩니다.’ 우리는 최후변론, 우리는 최후진술 준비 하나도 안 해갔고. 변호사님도 최후변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간다. 안 그러면 딱 그 일(1)심에 우리 법정구속 할 수 있는 기간이 육(6)개월인데 아니면 우릴 풀어줘야 될 판이라. 그러니까 이놈들이 무리하게 간다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날 재판을 낮에, 아침 먹고 교도소 와가지고. 점심 거기서 교도소, 법원 지하에서 먹고. 저녁밥도 평소에는 안 오는데 저녁밥도 거기서 갖고와가지고 지하에서 먹고. 그래, 그날 넘겼어요. 넘기고 새벽 두시까지인가? 재판을 했어요. 근데 변호사님은 사실은 이제 서면을 막 준비해가지고, 변호사들 최후변론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변호사님은 그때사, 그날 와서야 부랴부랴 막 준비를 해놓으니까 참 어려웠죠.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많이 격앙됐어요. 그래가 아마 판검사한테 좀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최후변론을 했을 꺼예요. 그러니까 인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야, 참. 저라다가 원래 판사가 때릴라고 했던 거보다 더 많이 때리겠다, 판사가.’ 도대체 변호인이 피고인들 형량을 줄여주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 편을 들어가지고 더 과격하게, 피고인들보다 더 과격하게 얘기하니 ‘저게 도대체 뭐 삼(3)년 받을 거 오(5)년 받고, 오(5)년 받을 거 칠(7)년 받고 이래 되는 거 아이가’ 가족들이 막 가슴이 조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특히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거 변호인 저래도 되나’ (웃음) 그런 얘기를 막 하실 만큼 격앙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날 아마, 일(1)심 최후변론 때도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검

사가 십(10)년, 이상륙씨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징역 십(10)년을 구형했는데 아, 우리 좀 받을 꺼라고 생각은 했지만 징역 십(10)년을 구형하는데 아, 등줄기가 서늘해지더라구요, 느낌이. 구형량을 다 따지니까 뭐 하여튼 백(100)년이 넘었던가. 그랬을 꺼예요.(웃음)

■ 구술자 주요이력

- 1956. 부산 출생
- 1976.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
- 1980.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부산대동고등학교 영어교사로 부임

- 1981. 부림사건으로 구속
- 1983. 형집행정지로 김해교도소에서 출소
- 1984. NCC 부산인권선교협의회 간사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 창립 및 활동 참여
- 1987.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차장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사무국장 겸 상임집행위원
- 200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2년)
부산교육개혁연대 상임대표, 부산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
민주공원 상임이사, 6·15부산본부 공동대표
- 2009. 전교조 부산지부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 2010. - 전교조 부산지부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소장(2012년 현재)
- 2011.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감사(2012년 현재)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일 때 강제 연행된 1981년 부림사건 피해자. 변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차장,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사무국장 겸 상임집행위원으로 ‘노변’ 과 부산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지켰다. 2012년 현재 전교조 부산지부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감사를 맡고 있다.